

한국의 체제전환 연구의 비판적 검토

남북한 사회문화적 갈등과 통합 연구를 위한 제언*

이우영**

한국 사회의 체제전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다양한 학문적 체제전환 연구가 이루어졌다. 둘째, 지역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통일문제와 연계하여 독일의 체제전환 연구가 있다. 한국 사회의 체제전환 연구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체제전환 연구에 관련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였다. 둘째, 체제전환 연구들을 연구 대상 국가를 확대시키고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북한연구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통일논의의 전환에 체제전환 연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제전환 연구의 한계도 있다. 첫째, 냉전시대의 유산인 자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이념적 편향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결과 비교에만 그치고 있다. 셋째, 구조나 체제와 같은 거시적인 접근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체제전환 연구가 남북 사회문화 통합 문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체제전환 국가의 사회문화적 갈등과 통합문제에 대한 주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고, 둘째, 미시적이고 일상적 수준의 연구가 필요하고, 셋째, 사회문화 통합의 주제별로 체제전환 사례를 확대하면서 경험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체제전환, 북한변화, 남북사회문화통합, 국가사회주의 몰락, 냉전 체제 와해

* 이 논문은 2020년도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년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문제 제기

소련의 탄생으로부터 출발한 국가사회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동구에서 중국 그리고 북한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30년 동안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하는 냉전체제를 유지하였으나 1980년 말부터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등 체제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체제전환(system transformation)은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당국가 체제를 통하여 근대국가로의 변화해 왔던 국가들이 시장을 수용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제도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¹⁾ 체제전환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었던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체제가 확산되는 세계사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냉전체제의 상징이었던 한반도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특히 남북한과 더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동서독의 통일은 남한에서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의 기대감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냉전체제의 와해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변화하기를 희망하는 남한의 사회적 열망을 자극하는 환경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

1)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체제전환과 더불어 체제이행(transition) 그리고 체제개혁(reform) 개념이 함께 사용된다. 개혁은 혁명(revolution)과 더불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개혁과 혁명이 변화의 양상이나 정도 그리고 속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행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체제전환은 정치·경제·사회 등 하위체제의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에 체제 변화의 차원에서는 체제전환이라는 용어가 설명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체제 전환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홍모,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서울: 오름, 2001), 6장; 김근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2010) 참조.

서 한국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관련된 연구가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과 관련된 연구들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몇 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 연구나 통일 문제와 관련된 기존 체제전환 연구가 통일과정에서 생겨 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통합문제와 연결하는 논의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존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관련된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북한 사회 연구나 통일연구 특히 사회문화 통합 문제에 체제전환 연구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전하여야 할지를 모색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²⁾

2. 체제전환 연구 활성화의 배경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에서 비롯되었다. 냉전체제에서 공고하게 유지될 것 같은 이른바 사회주의 블록의 국가들이 급격하게 와해되고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구소련 및 동유럽에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치체제가 민주적 정치체제로 바뀌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새로운 체제변동에 대한 관심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사적 전환은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다양한

2)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연구들은 체제전환, 탈사회주의, 사회주의 개혁, 독일 통일을 키워드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된 국내 학술논문과 단행본이다.

분야의 관심 영역이 되었다. 또한 체제전환은 일국가 내의 변동 문제 이면서 동시에 냉전구조라는 국제적 관계의 변화를 포괄하였기 때문에 체제 내부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이나 체제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 모두의 연구 주제가 되었다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 체제전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제고되는 배경이 되었다.

체제전환이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였으며, 지역학적 차원에서도 관심이 대상이었고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분단체제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통일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더욱 자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체제전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³⁾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에서 북한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가 북한 연구자들의 질문이었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변환 과정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연구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비교연구, 그리고 사례 연구 차원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 연구가 촉진되었다는 것이다. 냉전해체나 국가사회주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였던 북한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극심한 체제위기를 경험하였고 2000년대 들어 시장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북한식 체제전환'에 대한 관심이 배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독일의 통일도 체제전환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통합이나 통일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체제전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독일

3) 대부분의 북한 연구자들에게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중요한 관심사였다. 윤대규 엮음,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파주: 한울, 2008), 3쪽.

통일 과정 연구에서 동독의 체제변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동독의 체제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향후 남북 통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다.⁴⁾ 북한 체제 자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나 통일 문제에 관심이 높은 연구자 모두에게 체제전환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과정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순탄치 않았다는 점도 체제전환 연구를 자극하는 또 다른 배경이었다. 동유럽 국가를 장기간 지배하였던 공산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무너지고 시장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던 시점에는 일종의 ‘역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면서 대부분의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고 일당지배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수립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별로 체제전환 과정이 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국가체제는 유지되면서 민주화와 자본주의화를 진행한 폴란드, 루마니아와 같은 경우가 다수였으나, 국가가 분열되어 여러 나라로 나뉜 구소련과 유고슬라비아나 두 개 국가로 분리된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기존 국가체제가 와해된 동독의 경우 등 국가체제 자체의 존속 여부나 변화 형태도 일률적이지 않았다. 또한 중국이나 베트남, 쿠바와 같은 국가들은 공산당 지배의 정치구조는 유지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시장경제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앞의 국가들이 생겨나는 등 체제전환의 과정이 차별적이었다.

체제전환 형태도 다양하였을 뿐 아니라, 체제전환 과정 자체도 순탄치 않았다는 사실도 체제전환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4) 김누리 편저, 『머릿속의 장벽』(파주: 한울, 2006), 5쪽.

기여했다. 국가사회주의 몰락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경제난이 극복되기는커녕 빈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도 적지 않았다.⁵⁾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도 적지 않았는데, 러시아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신생국들이나 러시아 인접국가들은 공산당 일당독재만 폐기되었을 뿐 간판을 바꿔 단 집권당이나 일인 독재체제가 유지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지속된 경우도 있었다.⁶⁾ 사회적으로도 사회주의의 복지제도가 붕괴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⁷⁾ 이와 같은 체제전환 국가의 다차원적인 문제들도 체제전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배경이었다.

3. 한국 사회의 체제전환 연구의 특성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체제전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특

-
- 5)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난에 대해서는 정일용,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경제발전연구』, 제13권 1호(2007); Michael Forster, David Jesuit and Timothy Semmnding, “Regional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Discussion Paper, No.65, (2003) 참조.
 - 6) 체제전환 과정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윤덕희, “동유럽 공산주의 계승정당의 재출현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2권 4호(2002); 이규영·김경미,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 극우주의의 발흥과 극우정당의 발전에 대한 연구,” 『유럽 연구』, 제30권 1호(2012) 참조.
 - 7) 민기채·유현경, “주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동유럽 발칸연구』, 제40권 2호(2016); 이양호·권혁용·지은주, “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과정에서 나타난 사유화와 불평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 비교,” 『국제지역연구』, 제20권 1호(2016).

성이 있었다.

첫째,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서 체제전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전공별로는 정치학자들의 관련 연구들이 중심이 되었다. 체제전환의 배경으로 냉전체제 해제를 다루거나⁸⁾ 체제전환 국가들의 정치구조 변동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다. 정치구조와 관련해서는 엘리트의 교체나 이념의 변동, 정당구조의 변화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⁹⁾ 경제학에서도 체제전환 연구에 관심이 많았다.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특징을 분석하거나 전환 경제의 문제점에 연구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¹⁰⁾ 사회학이나 사회 복지학 등에서도 체제전환 문제를 꾸준히 다루어 왔다. 노동자나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체제전환 과정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있었고,¹¹⁾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8) 이상성, “세계체제의 재편구조: 냉전체제의 본질과 제2차냉전의 발전과 붕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엮음,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1991).

9) 정홍모,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서울: 오름, 2001); 윤대규 엮음,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 연구』, 2, 3, 4장; 윤덕희, “동유럽 공산주의 계승정당의 재출현에 관한 연구”; 이규영·김경미,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 극우주의의 발흥과 극우정당의 발전에 대한 연구”; 박정원, “중유럽의 민주주의 후퇴와 ‘인정의 정치’ 복원 모색: 헝가리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24권 1호(2021).

10) 정형곤, 『체제전환의 경제학』(서울: 청암미디어, 2008); 윤대규 엮음,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 연구』 5장; 한국조세연구원, 『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세·재정분야 기초연구』(서울: 조세재정연구원, 2001); 현영미, 『사회주의 체제전환』(서울: 선인, 2008) 1, 2부; 김수정·강성진·정태용,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분석과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 제36권 4호(2018).

11) 이양호·권혁용·지은주, “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과정에서 나타난 사유화와 불평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 비교”; 우태현, 『탈사회주의 이행기 사회의 노동조합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러시아와 중국의 국가 - 노동관계의 비교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의 변화를 다루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¹²⁾ 또 한 체제전환 이후 사회의식이나 이념, 공간 문제 그리고 시민사회 문제 등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¹³⁾

둘째, 지역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가사회주의 양측이라고 할 수 있었던 러시아와 중국과 관련된 연구 대부분이 체제전환과 관련되어 있다.¹⁴⁾ 러시아와 중국의 체제전환 연구는 정치학·경제학·사회학·인류학 등 인문사회과학에서 고루 이루어졌다. 외교정책을 포함

연구를 중심으로」(서울: 한국통중중양연구원, 2008); 최창용·김대홍, “체제전환 20년 소득불평등, 제도 발전, 그리고 경제 성장에 관한 실증연구,” 『지역발전연구』, 제27권(2018); 함인희,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성 불평등의 재구조화 과정,”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2004).

- 12) 윤도현, “동유럽 복지국가에서의 사회정책의 차이,” 『동유럽발칸연구』(2013); 정홍모, “체제전환국의 복지제: 체코·헝가리·폴란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 1호(2007).
- 13) 원재연, “사회주의 중국에서 탈사회주의 주체의 형성,” 『성균차이나브리프』, 제5권 4호(2017); 박재복, “독일통일의 사회 심리적 변화와 갈등문제,” 『아태연구』, 제7호(2000); 정재원, “중부·동남부 유럽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의 발전과 분화,” 『경제와사회』(2013); 이상준,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국가의 지역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28호(1999); 이문영, “탈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노스텔지어 비교 연구,” 『슬라브학보』, 제26권 2호(2011); 이은구, “탈사회주의 이후 헝가리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1권 1호(2013); 장윤미, “농민공”에서 “노동자”로: 중국 신노동자의 정체성 형성과 자각,” 『현대중국연구』, 제14권 1호(2012).
- 14) 조한범,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선래 외,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파주: 한울, 2011); 한국정치학회,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국가와 사회변동』(서울: 한국정치학회, 2003); 박진,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 사례연구』(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8); 한국개발연구원,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사례연구』(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8); 현영미, 『사회주의 체제전환』, 1장; 원재연, 『사회주의 중국에서 탈사회주의 주체의 형성』(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7).

한 정치체제의 변화나 경제구조의 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도시 농촌 등 지역문제나 사회집단 문제, 문화 현상과 같은 구체적인 주제의 연구들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체제전환의 중심이었다는 차원에서 사회주의를 경험하였던 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연구도 적지 않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을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들의 연구가 중심이 되었고,¹⁵⁾ 최근에는 북부 유럽의 발틱 3국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¹⁶⁾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과 쿠바의 체제전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⁷⁾ 지역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연구 초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동부유럽 국가의 경우 개별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발틱3국과 같이 구 소련연방 국가들은 주로 독립과 국가건설의 과정이 연구의 중심인 경향이 있다.

셋째, 독일과 관련된 체제전환 연구가 있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어 통일독일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체제전환국가와는 다른 경

15) 정홍모,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곽동훈, “루마니아의 발전적 사회통합에 있어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소외문제 체제전환 이후, 현재 루마니아 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부작용 실례를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제40권 1호(2016); 이은구, “탈사회주의 이후 헝가리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1권 1호(2013); 문용일, “불가리아의 정치적 양극화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화,” 『세계헌법연구』, 제26권 1호(2020).

16) 김학재, “발틱의 일순적 순간: 독립과 민주주의의 역사적 유산,” 『동유럽발칸연구』, 제41권 3호(2017); 박광수·이영기, “발틱3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요인 분석,” 『유럽연구』, 제27권 1호(2009); 정동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민족 건설과 소수인종 보호,” 『현대정치연구』, 제10권 1호(2017).

17) 이한우, “베트남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체제 정당화,”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2호(2016); 신석호,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동독의 차원에서 본다면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의 변화는 체제전환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동서독 통일 직후부터 주된 관심은 통일 과정이나 배경이었다.¹⁸⁾ 따라서 동독에 관련된 연구도 전환과정이라기보다는 구체제의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한정되는 경향이었다.¹⁹⁾ 그러나 통일 이후 동서독간의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면서 동독 지역의 체제전환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 초점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⁰⁾ 분단기간 동안 동서독간의 체제경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과 달리 동서독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자유 이주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통일 과정도 결과적으로 서독 중심의 흡수통일이었으나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동독주민들의 의사를 토대로 통일이 완성되었던 까닭에 통합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통합 이후에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치·경제·사회 문제가 속출하면서 비록 국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구동독지역의 변화를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²¹⁾ 공간의 차원에서 구동독의 지역문제를 다루거나 정치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

-
- 18) 통일이 이루어지는 대내외 환경 변화, 서독의 대동독 정책, 통일과정의 동독의 경제, 분야별 통합정책, 분단 시기 동서독 간의 교류 경험 등이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주로 서독의 입장 혹은 통일 독일의 정부입장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독일 통일 혹은 통일이전 동서독 관계 연구는 체제전환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 19) 정홍모,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9장; 고상두, “구 동독의 과거청산과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치정보연구』, 제22권 2호(2019).
- 20)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김누리, “정치경제적 통합과 사회문화적 분열,” 김누리 편저, 『머릿속의 장벽』(2006) 참조.
- 21) 정용길, “동독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6권 1호(2006), 34~35쪽.

는 연구들도 있었고,²²⁾ 동서독 주민들 간의 갈등, 구 동독지역의 사회 정책, 구동독의 미디어 문제, 구동독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다루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²³⁾

한국 사회 체제전환 연구 활성화의 중요한 배경이 북한 변화에 대한 관심이었던 까닭에 북한과 통일을 체제전환과 연계시키는 연구들이 지속되었다.²⁴⁾ 북한과 관련된 체제전환 연구는 북한 변화를 설명하는 방법 특히 비교사회주의 입장에서 기존 국가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경험을 북한 변화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²⁵⁾ 국가사회주의

22) 마르쿠스 폴만(Marcus Pohlmann)·이종희,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권력엘리트의 구조 변화,”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3호(2010); 고상두, “통일 이후 정치적 소외와 지역정당의 부상: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 의 시사점,” 『정치정보연구』, 제23권 3호(2020); 정병기, “통일 독일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한국정치학회보』, 제45권 4호 (2011); 김병희, “통일 25년, 구동독지역 정치지형 변화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7권 2호(2017); 윤기환, “구동독지역의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 『독일언어문학』, 제16호(2001).

23) 김누리 외, 『나의 통일이야기: 동독주민들이 말하는 독일 통일 15년』(파주: 한울, 2006); 김상철,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 『질서경제저널』, 제22권 2호(2019); 박주연,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미디어 시스템의 통합과 전환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3호(2009); 박재복, “독일통일의 사회 심리적 변화와 갈등문제,” 『아태연구』, 제7호(2000); 김재상, “통일 이후 동서독 간 갈등의 재조명: 2000년대 오스탈기 붐과 동독 이상화 현상을 보는 독일사회의 시각변화,”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36호(2011).

24) 김근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2010), 113쪽.

25) 김갑식 외,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파주: 한울, 2008), 1, 3장, 5장; 산용도, 『북한 경제체제전환 분석』(서울: 소화, 2002), 6장; 강성진, 『경제체제 전환과 북한』(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8장; 김근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 127~130쪽; 최완구·최봉대, “사회주의 체제전환방식의 비교연구,” 윤대규 엮음,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서울: 한울, 2008), 61~63쪽; 박제훈,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체제전환모델과 체제복원모델의 비교,” 북한연구 시리즈 19(2000).

몰락 이후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 배급제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을 체제변환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겪고 있는 변화과정을 체제전환 과정의 하나로 이해하면서 다른 체제 전환 국가들의 변화와 비교하는 연구들이다. 정치적으로는 유일지배체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화가 많았던 경제체제가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전망하거나 통일과정 혹은 남북한 통합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검토하는 연구도 있다.²⁶⁾ 이러한 연구들은 통일연구나 부분별 교류 및 통합 논의와 결합되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관련된 정책제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 사회의 체제전환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체제전환 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체제전환이나 탈사회주의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⁷⁾ 이한복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같

26) 김갑식 외,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파주: 한울, 2009); 이수훈 외,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파주: 한울, 2012); 김영윤,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6); 김은근 외, 『사회주의 농업의 체제전환과 북한 농업의 전망』(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박지연, “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유럽연합(EU)와의 경제통합 사례 연구와 북한에의 함의: 체제전환이 자국과 인접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대상으로,” 『전략연구』, 제26권 1호(2019); 김수정·강성진·정태용,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분석과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시사점”.

27) 이한복, “탈사회주의 이행연구에 있어서 이론구축을 위한 제언,” 『러시아와 동유럽』, 5(1998); 한병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정치경제와 비교정치,” 『세계정치』, 제

은 독특하면서도 복잡한 현상들을 이론화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기반으로 체제전환과 관련된 사건들을 범주화하고 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²⁸⁾ 그는 체제전환에 기존 이론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범위 수준의 이론 그리고 학제 간 연구의 보완을 통하여 모델링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⁹⁾

김태환은 정치경제학적인 차원에서 경제개혁의 불확실성, 자원지대, 정치연합에 초점을 맞추어 체제전환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그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 연합과 개혁저항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³⁰⁾ 한병진은 비교정치의 연구 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동유럽, 구소련, 중국의 개혁정치에 대하여 기존 이론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³¹⁾ 체제전환국을 분석 대상으로 하지만 그는 이를 통하여 비교정치학의 질적 제고가 가능하며 동시에 중동 및 중남미 지역의 선거권위주의론과 같은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여 설명력과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체제나 구조가 아닌 행위자 중심의 이론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적 연구의 고립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²⁾

이론적 논의와 관련된 글들은 체제전환 연구뿐 아니라 더 나아가 체제변동이나 비교정치 그리고 비교사회학적인 차원의 학문적 논의를

13권(2010); 김태환, “탈사회주의 권위주의 정권의 개혁저항: 이론적 논의와 유형 분류,” 『세계정치 13』, 제31집 1호(2010).

28) 이한복, “탈사회주의 이행연구에 있어서 이론구축을 위한 제언,” 88쪽.

29) 위의 글, 96쪽.

30) 김태환, “탈사회주의 권위주의 정권의 개혁저항: 이론적 논의와 유형 분류,” 142~153쪽.

31) 한병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정치경제와 비교정치,” 82쪽.

32) 위의 글, 116~117쪽.

자극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다시 체제전환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체제전환 연구들을 학문적 연구 대상 자체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학제 간 연구의 유효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하였다. 범지구화가 진전되면서 최근 지역학의 대상 국가들이 확장되고 있었으나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른바 서구의 선진국들이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근대화과정에 대한 관심에서 일부 중남미 등의 사회발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지역 연구 대상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체제전환 연구의 경우 구소련이나 중국 등이 남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과 관련된 논의들이 다수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동부나 북부유럽의 국가들이나 중앙아시아 및 베트남 등의 연구를 자극하였다는 것이다. 즉, 체제전환 연구 자체가 학문적 연구 대상의 확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등 사회과학뿐 아니라 문화연구나 역사학적인 접근 등 인문학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동일 주제에 대한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체제전환 자체가 다차원적으로 진행되고 동시에 차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부분적인 분석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체제전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도입과 경제발전의 성공여부는 정치체제나 엘리트 집단 그리고 시민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고,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복지정책의 작동 여부나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체제전환과 관련된 학제적 연구들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역사적 배경이나 국가사회주의 시기의 구소련국가의

지리적 인접성이나 국제정치적 관계도 체제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야별 연구와 학제 간 연구가 체제전환의 배경이나 과정 그리고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들이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 연구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이념 지향적인 북한연구의 성격을 둘러싸고 ‘내재적 접근법’ 논쟁도 치열하게 이루어졌고, 비교사회주의 방법론, 행위자 중심 연구 및 일상사 연구를 포함한 미시적 접근 그리고 신유물론의 활용 등 이론적 실험도 계속하여 왔다.³³⁾ 그러나 여전히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³⁴⁾ 북한 변화와 관련된 체제전환 연구는 근본적으로 비교사회주의적 접근법이 전제된다. 비교사회주의는 냉전 시기 소련 및 동구 국가체제 연구에서 꾸준히 활용된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만은 아니었다.³⁵⁾ 북한 연구에서도 비교사회주의 접근법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있어 왔으나 그 초점은 기존 북한 연구가 가지고 있는 특수주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⁶⁾ 국가사회주의의 기반이었던 스탈린주의를 토대로 비교사

33)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파주: 한울, 2009); 고유환,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2015); 고유환,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과 평화』, 제11권 1호(2019).

34) 정영철, “북한학 연구의 과거와 현재,” 『황해문화』, 제57권(2007), 323~324쪽.

35) 냉전시기 지역학의 한계, 국가 간 비교 방법론의 미발달, 전체주의의 접근법의 강력한 영향 등의 문제가 있었다. 노현중, “비교사회주의적 접근을 활용한 북한연구: 유용성, 개념활용 그리고 구조화된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제26권 1호(2022) 11~12쪽.

회주의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체제의 특성 특히 정치체제와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³⁷⁾ 비교사회주의가 북한 연구의 특수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체제 형성 과정 설명에 집중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반면 체제전환을 활용한 비교사회주의 연구들은 기존 비교사회주의가 정치체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경제, 사회, 문화 등 최근 북한 변화를 다차원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관련 체제전환 연구가 역으로 냉전체제 해체 이후 정체된 비교사회주의의 접근법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수 있다.³⁸⁾

넷째, 통일논의의 전환에 체제전환 연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단 이후 한국 사회를 통일 논의는 단일민족을 기반으로 한 단일국가 성립을 당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³⁹⁾ 그리고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서독 중심으로 독일이 통일되면서 북한 붕괴론이 위세를 떨치게 된다.⁴⁰⁾ 여기에 한국전쟁을 거치고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36) 조한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연구: 비교사회주의론적 관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2002), 121쪽.

37) 박형중,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론”: 비교사회주의적 접근 1 — 루마니아와 북한: 사회주의 주변부의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1995).

38) 노현중, “비교사회주의적 접근을 활용한 북한연구: 유용성, 개념활용 그리고 구조화된 비교,” 13쪽.

39) 기존 통일논의에 대해서는 이우영,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비교사회』, 제4권(2002) 참조.

40) 이상근, “북한붕괴론의 어제와 오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붕괴론에 대한 평가,” 『통일연구』, 제12권 2호(2008), 97쪽.

지배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반공주의가 결합하여, 북한체제는 붕괴하면서 남한으로의 흡수통일로 귀결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의 체제전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쿠바와 같이 사회주의 정치구조를 유지하면서 체제전환을 겪는 국가들을 목격하면서 북한 붕괴론의 위세는 약화되었다. 또한 체제전환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부각되고 통일 이후 독일 특히 구 동독지역의 불평등 문제나 동서독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갈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통일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체제전환을 통하여 시장 중심의 서구식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며, 공산당 지배가 종식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가 기존 체제를 대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체제전환으로 북한이 유일지배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식 사회주의’ 종식되고,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가 이식되면서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체제전환은 정치나 경제체제와 구조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의식이나 일상 문화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다차원적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4. 사회문화 통합을 향하는 체제전환 연구

그동안 이루어진 체제전환 연구들은 남북통합연구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기본적으로 통합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변

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통합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는 점이다. 북한이 유일지배라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0년
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시장화를 경험하면서 북한 나름의 체제전
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의 통합은 전통적인 국가사회주의인
북한이 아니라 체제전환을 겪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체제통합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북
한의 체제전환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주의 국가들의 다양한 체제전환을 광범위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진전될 통합과정의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실
효성 있는 통합 관련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체제전환 연구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움도 존재한다. 첫 번째로, 여전히 냉전시대의 유산인 자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이념적 편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
가사회주의를 타자화하면서 시장중심 자본주의의 전면적 도입이나 시
민사회 기반의 민주주의 체제 완성을 정상의 경로로 산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일탈 혹은 문제적 상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⁴¹⁾ 체

41) 최근 체제전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소비에트 노스텔지어’,
‘오스탈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 사회주의 지역 주민들이 구체제를 올바르
게 이해 못하고 과잉으로 이상화하는 데 원인을 찾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구체제를 그리워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치경제적 현실 혹은 이들
에 대한 다양한 차별 문제부터 시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오스탈기 현상과 사회
갈등에 대해서는 김재상, “통일 이후 동서독 간 갈등의 재조명: 2000년대 오스탈
기 붐과 동독 이상화 현상을 보는 독일사회의 시각변화,” 『취히너와 현대문학』,
제36권(2011); 이문영, “탈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노스텔지어 비교 연구,” 『슬
라브학보』, 제26권 2호(2011) 참조.

제 전환 과정의 긍정적 결과들보다는 문제점들을 주로 다루는 것도 이러한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체제전환이 사회주의의 붕괴와 실패와 동의로 쓰이고 북한의 경우 체제전환은 기존 체제의 와해와 동일시된다.⁴²⁾ 그리고 체제전환을 경제성장 및 소득 수준의 향상과 동일시하면서 시장화와 개방화,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체제전환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한다.⁴³⁾ 경제성장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파생 가능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체제전환 연구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의 사회발전의 이론적 토대였고 한국 사회의 대표적 성장이론인 ‘근대화론’과 일맥상통한다.⁴⁴⁾ 근대화론에서 전근대적 요소들을 극복 혹은 배제하려는 이분법적 사고와 마찬가지로 체제전환 연구를 통하여 국가사회주의 시기의 긍정적인 성과들이 무시되면서 결과적으로 체제전환 이후 체제전환 국가의 사회문화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42) 전용덕, “통일의 과제는 ‘탈사회주의’이다,” 『제도와 경제』, 제9권 1호.

43) 김수정·강성진·정태용,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분석과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시사점,” 23쪽; 탁용달,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과 시사점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1호(2017), 76쪽.

44) 근대화론은 서구의 경험을 근대화의 기준으로 삼고 서구가 발전해 온 일련의 과정이 근대화의 올바른 발전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이런 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경험하였던 제3세계 사회발전의 모델이기도 하였고, 분단된 남한에서는 서구식 정확히 말하면 미국식 근대화가 주류적 발전모델이고 지배담론이기도 하였다[김경동, “근대화론,” 『한국사시민강좌』, 제25집(1999), 1896~187쪽; 박영재, “동아시아 근대화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亞細亞文化研究』 2(1997), 144~145쪽]. 모든 체제전환이론이 근대화론과 잇닿아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근대화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연구가 진행된 경우도 있다[김정, “북한 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한국과국제정치』, 제38권 3호(2022), 103~105쪽].

두 번째로, 비교방법론 특히 비교사회주의 접근법이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결과 비교에만 그치고 있다는 문제이다. 경제성장이나 정치·사회적 불평등 지표 등을 활용하여 국가별 상황을 비교하고, 정책이나 제도의 비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교역사주의나 비교사회학이나 비교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맥락적 접근이나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체제변화 과정이나 결과의 다기성이 국가사회주의 몰락 이후 새로 만들어진 정치경제체제의 특성이나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냉전시기 형성된 국가사회주의의 역사적 맥락이나 국가 간 관계와 같은 공간적 맥락도 고려하여야 할 체제전환 과정을 설명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비교적 방법론이 거대적 구조와 폭넓은 과정에 대한 대규모 비교를 통하여 인과구조의 논리를 추적하는 것이라면, 45) 비교를 앞세우는 체제전환 연구들도 비교적 방법 특히 비교역사적 방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상적 비교는 역으로 개별 국가의 특수성만 부각할 수 있으며 체제전환에 대한 보편적 관심은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형성 과정과 같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체제전환 연구는 결과적으로 체제전환의 과정이나 문제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된다.⁴⁶⁾

세 번째로 정치체제나 경제제도의 변화가 체제전환의 핵심인 까닭

45) 서문기, “비교역사방법의 이해,” 『한국사회과학』, 제21권 2호(1999), 202쪽. 비교역사사회학의 대해서는 Charles Tilly, 『비교역사사회학』, 안치민·박형신 옮김, (서울: 일신사, 1999).

46) 예를 들어 발틱 3국 체제전환은 러시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맥락적 이해 없이는 올바르게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학재, “발틱의 월선적 순간: 독립과 민주주의의 역사적 유산”; 정동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민족 건설과 소수인종 보호”.

에 구조나 체제와 같은 거시적인 접근법에 집중하는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불평등 문제나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위자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행위자와 사회집단과 관련해서도 주로 엘리트나 정치적 지배층이 연구의 중심인 반면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체제' 전환이기 때문에 체제나 구조가 논의의 중심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사회구성원들이며 다수의 체제전환국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 정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 그리고 구조가 아닌 사회구성원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⁴⁷⁾

한국 사회에서 체제전환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바로 통일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체제전환 논의는 통일과 통합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필자가 관심을 주목하는 것은 체제전환 논의와 사회문화 통합문제의 결합 문제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연구와 마찬가지로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성화되면서 남북한 사회문화통합과 관련된 논의들도 활발하

47) 체제전환국의 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곽동훈, “루마니아의 발전적 사회 통합에 있어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소외문제 체제전환 이후, 현재 루마니아 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부작용 실례를 중심으로”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의 체제전환 연구로서 사지원, “구동독의 시민환경운동”; 윤기황, 구동독지역의 경제, 사회, 정신적 변화”; 박재복, “독일통일의 사회 심리적 변화와 갈등문제” 참조.

게 이루어졌다. 사회문화통합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통일문화’가 상징하는 단일성을 지향하는 동질성 회복식의 통합논의는 지양되고 사회문화 통합의 다층적이고 복합적 성격에 대한 성찰도 진행되면서 통일이나 통합논의도 진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⁴⁸⁾ 이 과정에서 독일 통일 이후 동서 간 사회문화 갈등 연구자들은 남북한 사회문화통합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이외 국가 관련 체제전환 연구자들에서도 체제전환과 사회문화통합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경우도 있어 남북한 사회문화통합 논의에 도움이 되고 있다.⁴⁹⁾

체제전환 연구가 남북한 사회문화통합 논의에 필요한 것은 통합의 상대인 북한의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 논의는 기본적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따라서 시간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국가사회주의 체제전환이 공유하고 있는 특성들과 동시에 특수한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식 체제전환을 이해함으로써 통합의 배경이나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통합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이것은 다시 크게 두 차원으로 나뉘질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독일의 경험이다. 독일 통일은 통일연구나 통합연구의 핵심적 사례였으나 기존 연구는 통일을 주도하고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주로 서독

48)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 논의들에 대해서는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회학회 춘계 심포지움 논문집』(2001), 13~20쪽 참조. 새로운 사회문화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대학원 대학교 남북한 마음통합단의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 잇기: 남북의 접촉지대』(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의 지도』(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이우영 외, 『분단되며 마음 만들기』(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이우영 외, 『통합 그 이후를 생각한다』(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이우영 외, 『세계의 분단된 마음들』(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참조.

49) 이동윤, “분단과 갈등, 그리고 통일: 독일, 예멘, 베트남의 갈등관리 사례 비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2002).

적 시각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체제전환 연구는 동독지역이나 동독 주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합과정의 예상 가능한 사회갈등에 대한 전망의 폭을 넓혀 주는 동시에 북한주민들이 경험할 어려움도 대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체제전환 국가의 다양한 사회문화 갈등의 사례를 이해함으로써 통합과정에서 대비하여야 할 사회갈등의 범위와 필요한 정책이나 사회운동을 미리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체제전환 국가의 사회문화적 갈등을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향후 사회문화교류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남북 사회문화 통합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체제전환 연구가 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체제전환 국가의 사회문화적 갈등과 통합문제에 대한 주제 연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체제전환 국가들의 변화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체제전환의 유형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사회갈등이 어떤 조건이나 배경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와 범위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이나 시민사회의 사회적 대응을 포함한 통합노력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비교역사주의적 접근법이나 관점이 필요하다. 현상의 비교를 넘어서는 맥락적 비교를 통하여 사회문화적 갈등과 통합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남북한 간 사회문화 통합 문제에 대한 연구나 실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보편적 연구와 더불어 미시적이고 일상적 수준의 체제전환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이 차별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동독 내에서도 통일 이후 사회변화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의 차이가 지역별로 적

지 않다.⁵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체제전환 과정이나 문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성별, 세대별 등 사회집단별로 체제전환은 다르게 수용되고 체제전환의 문제는 다르게 표출될 수 있다. 공간과 지역, 계급을 포함한 집단별 체제전환 연구는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사회문화 통합의 주제별로 체제전환 사례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적 불평등 및 갈등의 사례에 적합한 경우와 성적 불평등이나 소득 불평등이 두드러진 사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사회주의의 이념이나 의식과 새로운 문화나 사고의 충돌 그리고 세대갈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다를 수 있다. 국가단위가 아닌 갈등과 통합의 주제를 기준으로 한 체제전환 사례를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경험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체제전환국에 대한 각종 통계조사는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있고,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 과정에서 외적 지표로 나타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실질적 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지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이나 참여관찰 등도 가능할 것이며, 문화예술 작품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직접 조사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 간의 협업과 학제 간 연구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0) 김면희, “베를린장벽 붕괴 30년, 구동독지역 정치지형 변화 연구,” 『유럽연구』, 제38권 3호(2020).

체제전환 연구는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냉전문화가 지배적인 그리고 여전히 분단 문제가 체제에서 일상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다차원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체제전환 연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적었던 체제전환 연구가 남북 사회문화 통합 연구 및 실천과 결합된다면 양자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11월 14일 / 수정: 12월 1일 / 채택: 12월 12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 강성진, 『경제체제 전환과 북한』(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김영운,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6).
- 김운근, 『사회주의 농업의 체제전환과 북한 농업의 전망』(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 박진,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 사례연구』(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8).
- 우태현, 『탈사회주의 이행기 사회의 노동조합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러시아와 중국의 국가 - 노동관계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서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8).
- 원재연, 『사회주의 중국에서 탈사회주의 주체의 형성』(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7).
- 윤대규 엮음,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파주: 한울, 2008).
- _____ 엮음,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파주: 한울, 2009).
- _____ 엮음,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파주: 한울, 2008).
- 이수훈·김근식 외,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파주: 한울, 2012).
- 이우영·구갑우·양문수 외, 『분단된 마음 잇기: 남북의 접촉시대』(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 이우영·구갑우·이수정 외, 『분단된 마음의 지도』(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 이우영·권금상 외, 『분단너머 마음 만들기』(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이우영·김성희·김태경 외, 『세계의 분단된 마음들』(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 이우영·김태경·구갑우 외, 『통합 그 이후를 생각하다』(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 조한범,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정홍모,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서울: 오름, 2001).

- 정형근, 『체제전환의 경제학』(서울: 청암미디어, 2008).
-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파주: 한울, 2009).
- 코리아컨센서스 유라시아연구회 엮음,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파주: 한울, 2011).
- 한국개발연구원,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사례연구』(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8)
- 한국정치학회,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국가와 사회변동』(서울: 한국정치학회, 2003).
- Tilly, Charles, 『비교역사사회학』, 안치민·박형신 옮김(서울: 일신사, 1999).

2) 논문

- 고상두, “통일 이후 정치적 소외와 지역정당의 부상: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의 시사점,” 『정치정보연구』, 제23권 3호, 101~123쪽.
- _____, “구 동독의 과거청산과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치정보연구』, 제22권 2호(2019), 29~51쪽.
- 고유환,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과 평화』, 제11집(2019), 5~32쪽.
- _____,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2015), 29~54쪽.
- 곽동훈, “루마니아의 발전적 사회통합에 있어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소외문제 체제전환 이후: 현재 루마니아 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부작용 실례를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제40권 1호(2016), 229~260쪽.
- 김경동, “근대화론,” 『한국사시민강좌』 25(1999), 172~196쪽.
- 김근식, “연구논문: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 - 비교사회주의의 관점에서,”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2010), 111~136쪽.
- 김면희, “통일 25년, 구동독지역 정치지형 변화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7권 2호(2017), 27~54쪽.
- _____, “베를린장벽 붕괴 30년, 구동독지역 정치지형 변화 연구,” 『유럽연구』, 제38권 3호(2020), 97~127쪽.
- 김상철,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 『질서경제저널』, 제22집 2호(2019), 1~29쪽.

- 김수정·강성진·정태용,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분석과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 제36권 4호(2018), 5~29쪽.
- 김용우, “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국제적 적용상황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3호(2004), 2~22쪽.
- 김재상, “통일 이후 동서독 간 갈등의 재조명: 2000년대 오스탈기 붐과 동독 이상화 현상을 보는 독일사회의 시각변화,”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36호(2011), 209~232쪽.
- 김정,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한국과국제정치(KWP)』, 제38권 3호(2022), 101~133쪽.
- 김태환, “탈사회주의 권위주의 정권의 개혁지향: 이론적 논의와 유형 분류,” 『세계정치』, 제13권(2010), 119~158쪽.
- 김학재, “발틱의 월슨적 순간: 독립과 민주주의의 역사적 유산,” 『동유럽발칸연구』, 제41권 3호(2017), 139~174쪽.
- 노현중, “비교사회주의적 접근을 활용한 북한연구: 유용성, 개념활용 그리고 구조화된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제26권 1호(2022), 7~46쪽.
- 폴만, 마르쿠스(Marcus Pohlmann),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권력엘리트의 구조 변화,” 이종희 옮김,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3호(2010), 159~188쪽.
- 문용일, “불가리아의 정치적 양극화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화,” 『세계헌법연구』, 제26권 1호(2020), 127~154쪽.
- 민기채·유현경, “주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동유럽발칸연구』, 제40권 2호(2016), 129~160쪽.
- 박광수·이영기, “발트3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요인 분석,” 『유럽연구』, 제27권 1호(2009), 115~141쪽.
- 박영재, “동아시아 근대화론과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세아문화연구』, 제2집(1997), 139~151쪽.
- 박정원, “중유럽의 민주주의 후퇴와 ‘인정의 정치’ 복원 모색: 헝가리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24권 1호(2021), 191~219쪽.
- 박제훈,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체제전환 모델과 체제복원모델의 비교,” 『북한연구시리즈』, 제19권(2000), 111~

138쪽.

- 박주연,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미디어 시스템의 통합과 전환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3호(2009), 219~248쪽.
- 박지연, “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유럽연합(EU)와의 경제통합 사례 연구와 북한에의 함의: 체제전환이 자국과 인접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대상으로,” 『전략연구』, 제26권 1호(2019), 227~257쪽.
- 박재복, “독일통일의 사회 심리적 변화와 갈등문제,” 『아태연구』, 제7권(2000), 352~364쪽.
- 박형중,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론”: 비교사회주의적 접근 1 — 루마니아와 북한: 사회주의 주변부의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1995), 48~73쪽.
- 배중윤, “한국대외정책의 정책기조 전환에 관한 연구: 6.23선언과 정책의 실효성 상실 여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8권 1호(2016), 1~32쪽.
- 사지원, “구동독의 시민환경운동,” 『독일언어문학』, 제50집(2010), 275~294쪽.
- 서문기, “비교역사방법의 이해,” 『한국사회과학』, 제21권 2호(1999), 199~223쪽.
- 신석호,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원재연, “사회주의 중국에서 탈사회주의 주체의 형성,” 『성균차이나브리프』, 통권 45호(2017), 164~171쪽.
- 윤기황, “구동독지역의 경제, 사회, 정신적 변화,” 『독일언어문학』, 제98집(2001), 455~474쪽.
- 윤덕희, “동유럽 공산주의 계승정당의 재출현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2002), 423~445쪽.
- 윤도현, “동유럽 복지국가에서의 사회정책의 차이,” 『동유럽발칸연구』, 제35권(2013), 279~304쪽.
-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회학회 춘계 심포지움 논문집』(2001), 3~32쪽.
- 이규영, “탈사회주의와 ‘중부유럽’의 재발견,” 『국제정치논총』, 제40집 1호(2000), 161~183쪽.

- 이규영·김경미,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 극우주의의 발흥과 극우정당의 발전에 대한 연구,” 『유럽연구』, 제30권 1호(2012), 43~71쪽.
- 이동윤, “분단과 갈등, 그리고 통일: 독일, 예멘, 베트남의 갈등관리 사례 비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2002), 179~204쪽.
- 이문영, “탈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노스텔지어 비교 연구,” 『슬라브학보』, 제26권 2호(2011), 151~180쪽.
- _____, “탈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노스텔지어 비교 연구,” 『슬라브학보』, 제26권 2호(2011), 151~180쪽.
- 이삼성, “세계체제의 재편구조: 냉전체제의 본질과 제2차냉전의 발전과 붕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1991), 83~122쪽.
- 이상근, “북한붕괴론의 어제와 오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붕괴론에 대한 평가,” 『통일연구』, 제12권 2호(2008), 93~133쪽.
- 이상준,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국가의 지역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통권 28권(1999), 15~28쪽.
- 이양호·권혁용·지은주, “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과정에서 나타난 사유화와 불평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 비교,” 『국제지역연구』, 제20권 1호(2016), 3~30쪽.
- 이우영,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비교사회』, 제4권(2002), 69~89쪽.
- 이은구, “탈사회주의 이후 헝가리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1집 1호(2013), 1~23쪽.
- 이한복, “탈사회주의 이행연구에 있어서 이론구축을 위한 제언,” 『러시아와 동유럽』 5(1998), 87~98쪽.
- 이한우, “베트남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체제 정당화,”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2호(2016), 399~432쪽.
- _____, “탈사회주의 이행기 베트남에서 국가-노동관계,”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2010), 383~421쪽.
- 전용덕, “통일의 과제는 ‘탈사회주의’이다,” 『제도와 경제』, 제9권 1호(2015), 93~125쪽.

- 정동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민족 건설과 소수인종 보호,” 『현대정치연구』, 제10권 1호(2017), 125~161쪽.
- 정영철, “북한학의 현황과 전망,” 『황해문화』, 제57호(2007), 304~325쪽.
- 정용길, “동독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6권 1호(2006), 29~53쪽.
- 정일용,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경제발전연구』, 제13권 1호(2007), 223~255쪽.
- 정재원, “중부·동남부 유럽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의 발전과 분화,” 『경제와사회』(2013), 134~169쪽.
- 정홍모, “체제전환기의 엘리트와 민주주의,” 『동유럽발칸연구』, 제101호(2001), 23~42쪽.
- _____, “체제전환국의 복지체제: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 1호(2007), 71~100쪽.
- _____, “1989년 동구혁명에 관한 해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1호(1999), 309~328쪽.
- 조한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연구: 비교사회주의론적 관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2002), 117~145쪽.
- 최창용·김대홍, “체제전환 20년 소득불평등, 제도 발전, 그리고 경제 성장에 관한 실증연구,” 『지역발전연구』, 제27권 1호(2018), 27~66쪽.
- 탁용달,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과 시사점 연구,” 『北韓研究學會報』, 제21권 1호(2017), 53~80쪽.
- 한병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정치경제와 비교정치,” 『세계정치』, 제13권(2010), 79~118쪽.
- 함인희,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성 불평등의 재구조화 과정,”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2004), 105~140쪽.

A Critical Review of System Transformation Studies in Korea: Sociocultural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uggestions for Integrated Research

Lee, Woo You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terms of characteristics, system transforma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n society comprise various academic backgrounds, regional-level research, and research on issues related to the German reunification. Despite the considerable results of these studies, shortcomings exist: ideological bias centered on capitalism or liberal democracy; comparative socialist approach but expression of results limited to phenomenal comparisons; and higher degree of concentration on macroscopic approaches at the level of structures and system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ntegration of inter-Korean society and culture, future studies should focus on several aspects: first, further expand the subject research on sociocultural conflicts and integration issues; second, in addition to macro-level research, include more micro and daily-level system transformation research; third,

expand to include cases of system transformation for various topics of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and fourth, promote empirical research.

Keywords: transformation, North Korean social changes,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y and culture, collapse of the socialist states, collapse of the Cold War regime